

---

第13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5年11月27日(土) 午前10時

場所 運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第13回定期會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

審査된案件

1. 第13回定期會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 1面

---

(11時 34分 開議)

○委員長 金洙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定期會 第3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第13回定期會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委員長 金洙福; 議事日程 第1項 第13回 定期會 議事日程變更 協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第4代 議會가 開院된 이래 第13回 定期會를 맞이하여 시민의 代表機關으로서 市政에 대한 감시, 감독자로서의 맡은 바 責務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市政의 興고 그름과 豫算執行의 잘잘못을 추궁하기 위해 行政事務監

査를 진행 중에 있고, 11月 30日 부터는 3日 동안 20名의 議員들이 趙淳 市長을 상대로 市政質問을 펼칠 예정이며, 이어서 12月 16日까지 96年度 豫算案을 심사 확정하는 등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執行部の 首長인 趙淳 市長께서는 議會와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이 95年度 11月 25日부터 11月 30日까지 6日間 濠洲를 방문한 것은 市議會의 議事日程을 묵살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本 委員長은 생각합니다.

이에 議會運營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運營 委員會에서는 서울市 副市長, 企劃管理室長, 內務局長을 출석시켜 趙淳 市長의 호주방문 목적 및 경위, 방문기간을 定期會 기간 중에 잡은 사유와 이번 방문이 議會의 議事日程을 묵살했는지의 여부, 11月 30日로 예정된 市政質問에 대한 답변 등 趙淳 市長 不在時의 執行部の 對議會에 대한 대책 등을 듣고, 議員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趙淳 市長의 호주방문에 대한 합당하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도출될 경우 議事日程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第13回 定期會의 議事日程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출석 요구한 副市長과 또 都明正 企劃管理室長, 그리고 內務局長은 趙淳 市長의 호주방문 경위를 상세하게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禹元植 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禹元植 委員입니다.

지금 委員長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고를 듣고 議事日程 변경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趙淳 市長의 일정변경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지난 選舉 過程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千百萬 서

올市民이 市長을 뽑을 때와 서울시議員을 뽑을 때의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市長은 行政執行의 會長으로서 投票를 했고, 議員은 그 執行部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두 부분의 機能과 役割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서로 상호 견제와 대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改革과 바른 方向을 설정해 가는 것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執行部の 議會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市政質疑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된 바가 있으나 양자가 同伴者로서 위상정립이 되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지난 남산에서 市長 就任式 때 市長은 副市長까지 다 소개를 하고 나중에 議長을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壇下에 세워 놓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執行部가 서울시議會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그 位相에 대한정립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지금 第4代 서울시議會가 開院해서 처음 定期會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民들의 궁금한 점, 그리고 문제점을 질의하는 市政質疑 시간에 서울시長은 한 마디 사전 통고도 없이 議長한테 최소한 갖추어야 될 예우도 갖추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우리 運營委員會 委員들이 이것을 알게 된 과정 자체도 참으로 委員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公務員 한 사람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事務錯誤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議會를 대했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서울시 執行部の 태도를 가지고서는 兩者의 관계가 同伴者的 關係로서 올바로 설정되기 정

말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是正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각오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運營委員會에서 요구했던 副市長이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오늘 運營委員會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委員들의 판단이 먼저 전체 되고, 副市長이 출석하지 않은 선에서 企劃管理室長의 답변을 듣는 것을 同意를 한다면 運營委員會를 續開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副市長의 출석하에 다시 運營委員會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運營委員長께서 案件으로 채택하셔서 運營委員 여러분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모으고 會議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방금 禹元植 委員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委員長으로서 제가 토요일에 갑자기 市長의 議事日程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접수하고 저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同僚委員들보다도 더욱더 분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까지도 副市長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더욱더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企劃管理室長은 바로 副市長에게 긴급히 연락해서 副市長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게 된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방금 委員長님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運營委員長님 室에서 몇몇 委員님들이 왜 政務副市長은 나오시지 않으셨느냐 하고 저에게 힐책을 했습니다. 그런

데 서울市立大學校에서 주최하는 地方自治 세미나가 지금 世宗文化會館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오래 전에 계획이 된 行事故, 또 여기에 우리 副市長님이 나가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出席要求는 토요일에 갑자기 생긴 事項이고 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議會와 저희 市와 관련한 사항을 창구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企劃擔當官 안에 議會協力係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 그간의 경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事項에 대해서 소상하게 報告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禹元植 委員; 委員長,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副市長께서 그런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金洙福;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副市長이 오늘 몇 時에 세미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제가 알기로는 9時에 世宗文化會館 행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그러면 그 전에 議長이나 또한 議長님이 안 계셨으면 運營委員長하고도 사전에 전화교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議會를 무시하고 경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승어가 뛰니까 꿀뚜기가 뛰는 격으로 市長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경시한 그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서 副市長까지도런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서울市와 우리 議會가 원만하게 運營이 되겠는가? 그리고 주제발표를 했으면 지금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연락도 취해 보지도 않

고 지금 企劃管理室長이 전부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연락을 취해 보시고 어떤 결과로, 어디에 계신가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金聖浩 委員 發言해 주세요.

○金聖浩 委員; 金聖浩 委員입니다.

副市長을 기다리는 이런 停會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禹元植 委員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우리 運營委員님들의 의사를 물어 보자는 그런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市長은 議會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벌써 호주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副市長도 사전통보 없이 세미나에 참석해 있고, 그런 시점에서 副市長을 기다린다고 어떻게 停會를 하고 運營委員들이 기다립니까? 지금 각 常任委員會가 열리고 있는데 차후에 오후에 다시 運營委員會를 소집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散會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委員長님.

○委員長 金洙福; 梁敬淑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같은 의견입니다.

市長과 副市長의 議會를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副市長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監査期間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市長의 外遊나 副市長의 運營委員會 불참석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 次元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

다고 생각을 합니다. 市長은 물론이고 副市長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議會는 결코 앞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趙淳 市長의 議會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와 잦은 外遊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是正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李海瓚 副市長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온다고 해도 변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議會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趙淳 市長의 市議會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市の 산적한 문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나아지는 것을 市民이 못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市長이 벌써 두 번씩이나 外遊를 하고 있는 안이한 行政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趙淳 市長이 서울 市議會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함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면에서 분노감까지 느낍니다.

市長이 어떻게 議會에 어떠한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市民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本會議 市政質問 일정까지 무시하고 外遊를 떠난다는 말입니까?

市長은 벌써 市民들의 처지를 무시한 화려한 外遊 報告場에서 벌어졌던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의 항의를 잊었다는 말입니까? 市議會 전체를 모독하는 동시에 市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은채 다른 나라의 학교 강연이나 하고, 다른 나라의 방송과 인터뷰나 하고, 만찬이나 하느라고 못 오겠다는 이것이 市民들의 代表가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서울市長을 비롯한 서울市가 계속적으로 議會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우리 議會는 단호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市는 市金庫 再契約 문제도 公開競爭을 포함하여 市議會와 충분히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本會議 市政質問 答辯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議會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0年間이나 隨意契約의 특혜를 주었던 商業銀行을 市金庫로 또 다시 지정하겠다고 연이어 言論에 발표를 하더니, 이번에는 市長이 市政質問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議會를 목살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趙淳 市長은 취임 후에 각종 稅金과 地下鐵料金 등 公共料金이 턱없이 오르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市民들의 市稅負擔은 22%나 가증될 전망입니다.

市長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던 서울 特別法 制定이 무산 위기에 있고, 自治區 財政均衡을 위해서 추진중이던 담배消費稅와 綜合土地稅 교환도 물건너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 놓지 못하면서 무슨 外遊가 이렇게 잦다는 말입니까? 公務員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外遊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았습니까? 더욱이 서울市議會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趙淳 市長의 행태는 더 이상 議會가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副市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趙淳 市長의 議會 市政質問 일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外遊를 핑계로 本會議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市民들은 물론이고 市議員들 모두 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委員은 서울市 관계자들이 趙淳 市長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議會 本會議에 참석토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議會에서 이 부분을 決議해서 촉구할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宋仁回 委員; 宋仁回 委員입니다.

委員長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副市長, 內務局長, 그리고 議會事務處長도 나와 있지를 않군요. 이 상황에서 運營委員會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을 委員長님이 해 주세요.

○委員長 金洙福; 지금 내가 그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고, 지금 兩 幹事하고 숙의한 바, 停會를 했다가 午後 2時에 副市長 이하 關係會를 전원 참석을 시킨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委員님들이 잘잘못을 따지시고, 또한 趙淳 市長을 급거 귀국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議事日程은 현 상태에서는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午後 2時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委員 여러분, 어떠십니까?

洪樂元 委員 質問해 주세요.

○洪樂元 委員; 洪樂元 委員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會議를 참석해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단 우리가 이런 會議 소집을 해서 開議를 宣布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議事日程을 정해 놓았는데 市長께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外遊를 하셨기 때문에 議事日程上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會議를 소집을 한 이상, 지금 여러 분이 말씀 하셨지만, 議會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議事日程에 잡혀 있는 市政質問 일자에 外遊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副市長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그런 모든 企劃을 관리하시는 室長님께서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그냥 停會를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분 나름대로 答辯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꼭 副市長한테 그런 答辯까지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야지 무조건 運營委員會 委員들이 무슨 5分 대기조 아니고, 會議에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보면 그러한 이 유로 또 停會를 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會議를 소집한 이상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한 執行部의 설명을 일단은 듣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金洪奎 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金洪奎입니다.

이틀 전에 本委員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副市長하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內務局長님을 참석토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오늘 副市長이 참석을 해야 됴에도 지금 참석을 안하고, 다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市長이 議會를 경시하는 현 시점에서 副市長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議會와 執行部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재차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副市長님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따 오후에 한 3時쯤으로 잡아서 꼭 참석을 해서 副市長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모든 委員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하루 더 당겨서 귀국을 하시게 하든가, 아니면 그 때 副市長

의 정확한 얘기를 듣고 우리 議會에서는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市長이 그러고, 副市長이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企劃管理室長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市長이 外遊를했고, 특히 定期監査 때, 定期會 때 外遊를하면서 그것도 市政質問 날도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議會 차원에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러한 일을 企劃管理室長의 答辯보다는 市長이 일을 저질렀으면, 원인제공을 했으면, 副市長이 답변을 해 주어야 도리입니다. 副市長의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이 議會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또 市長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議會 차원에서 중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梁敬淑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梁敬淑 委員 질문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저는 그 意見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출석요구를 議會가 분명히 副市長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副市長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運營委員會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監査期間입니다. 監査를 다 내팽개치고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會議에 참석을 했는데 몇 시간씩 副市長이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副市長 출석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2時에 副市長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議會는 무엇이 되

는 것입니까?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사전통보도 없이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데 2시에 출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副市長이 2시에 출석을 한다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구한 변명 외에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會議進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議會의 방침을 결정을 하고, 議會가 앞으로 市長이나 副市長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촉구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會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會議 자체를 停會하자, 그러면 副市長이 2시에 안 온다면 또 停會할 것입니까? 내일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일 다시 열 것입니까? 議會의 자존심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58分 會議中止)

(12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洙福;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洪奎 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本委員이 발언했듯이 잠깐 停會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續開해서 副市長이 꼭 참석토록 企劃管理室長은 연락을 드리고 해서 오늘 만약에 출석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전체 議會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運營委員會는 停會를 해서 2時부터 續開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른 委員님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과 또 우리 중식을 위해서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11分 會議中止)

(14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洙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李海瓚 政務副市長으로부터 趙淳 市長의 호주 방문 목적 및 경위, 방문기간을 定期會기간 중에 잡은 사유와 이번 방문이 議會의 議事日程을 목살했는지의 여부, 11月 30日字로 예정된 市政質問에 대한 답변 등 趙淳 市長 不在時의 執行部の 對議會에 대한 대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 副市長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仁回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洙福; 宋仁回 委員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仁回 委員; 政務副市長의 경위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運營委員會 會議를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運營委員長은 틀림없이 政務副市長, 內務局長, 企劃管理室長을 오늘 11時에 開會하는 運營委員會에 참석토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政務副市長의 11時 會議 불참사유, 또 運營委員會에서 요청한 참석 요구를 목살한 데 대한 사과를 듣고, 그리고 趙淳 市長이 25日부터 30日

까지 시드니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1차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政務副市長  
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會議를 진행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委員 여러분, 우리 宋仁回 委員의 動議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 배경설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同僚委員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내용설명과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洪淳喆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洙福; 그러면 洪淳喆 委員 질문하여 주십시오.

○洪淳喆 委員; 洪淳喆 委員입니다.

地方化時代に 千百萬 서울시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지난 20日 第13回 定期會 開會時  
서울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이 上程 可決  
되었습니다. 市政質疑가 11月 30日부터 12月 2日까지 있음  
을 분명히 알면서도 출국하였다는 것은 議會民主主義에 정면  
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피치 못할 사  
정이 있었다면 運營委員會를 통하거나 아니면 議長團에게 양  
해를 구하였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출국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과 명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하나  
만 보더라도 執行部の 無事安逸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39條第4項에 政務副市長은 市長  
을 보좌하여 政策과 企劃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政務的 業  
務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울特別市訓令 第822號에 보면 서울

特別市副市長事務分掌規程 第1條 목적, 이 규정은 地方自治法 第101條 및 同法施行令第39條에 의한 副市長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사무분장, 副市長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해서 政務副市長 專擔事項, 공보관 소관업무 第2項 對國會, 對議會 협조 및 政黨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李海瓚 政務副市長은 議會와 執行部の 기능과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議會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千百萬 서울 市民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趙淳 市長 귀국과 동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또 다른 委員, 質問이 안 계시면 李海瓚 政務副市長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우리 洪淳喆 委員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한 모든 점을 상세하게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仁回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洙福; 네, 말씀하세요.

○宋仁回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린 내용은 政務副市長의 11時 會議의 불참 이유와 사과를 듣고, 趙淳 市長의 호주 체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委員들이 1차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政務副市長이 답변을…….

○委員長 金洙福; 아니, 질문할 委員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會議를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宋仁回 委員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仁回 委員; 그러면 제가 質問을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자꾸 뒤바뀌니까 일단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또 하고 그러시다.

○宋仁回 委員; 委員長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政務副市長 李海瓚; 政務副市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市議會 運營委員會에서 저희 關係公務員들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市에 도착한 문건에 의하면 오늘 11時 運營委員會에 行政1副市長, 企劃管理室長, 內務局長, 이렇게 세 사람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本 委員會에서는 政務副市長, 企劃管理室長, 內務局長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議決이 된 모양인데 저희한테 전달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政務副市長이 아니고 第1副市長으로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第1副市長으로 출석요구가 되어 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저는 오늘 9時 30分부터 서울市立大學校 附設研究所 서울학연구소 세미나에서 市長님을 대신해서 기념 인사말을 해야 되고, 토론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했고, 行政1副市長은 문서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오기인 것 같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서로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地方自治法 규정에 의해서 公報官業務와 對國會, 對議會, 政黨業務에 대해서 市長님을 政務副市長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市長님을 대신해서 활동하도록 분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運營委員會 會議와 관계된 질의에 대해서 제가 市長님을 대신해서 委員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그러면 우리 宋仁回 委員 질의하여 주십시오.

○宋仁回 委員; 宋仁回 委員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市長이 議會 開會 중에, 특히 市政質問 일자에 귀국하지 않고 해외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議會와 執行部間에 견제 감독, 또는 피견제 피감독 관계에서의 양자간에 바른 위상이 정립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상호 반드시 있어야 될 긴장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市長을 대신해서 政務副市長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관점은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관점에서 市長의 호주방문이 議會와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되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市長訪問이 먼저 결정이 되고 議會日程이 후에 확정이 되었는지, 또 市長訪問이 먼저 결정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日程이 확정된 뒤에는 반드시 議會에 그것을 통보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議會에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써 議會의 市政質問 日程이 확정된 뒤에 市長의 호주방문 日程이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 議會事務處나 또 執行部間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執行部에서 議會의 일정을 알았든, 또 議會에서 市長의 방문일정을 알았든 간에 조정협회가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이 적절히

되었는지, 양해요청이 됐는지,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政務副市長의 答辯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음은 梁敬淑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趙淳 市長의 市議會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자세와 잦은 外遊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是正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市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고, 또 趙淳 市長이 많은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 나아지는 것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市長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定期會, 그것도 行政監査 기간 중에 外遊를 한다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을 질의하는 市政質問場에 市長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議會와 이러한 상황을 단 한 마디 상의나 양해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議員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市長을 보좌하는 政務副市長께서는 이런 定期會 기간에 市長이 양해도 없이 다른 나라대학에 가서 강연이나 하고 다니고, 각 만찬에 참석하거나 기관 시찰하고, 또 다른 나라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정황이라면 副市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들이 外遊를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번째 海外外遊 때도 화려한 報告를 하려고 했을 때 삼풍 백화점 피해자들이 가서 항의를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市長을 제대로 補佐하는 그런 執行部 公務

원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또는 시민의 질타를 미리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議會가 定期會 일정을 이미 10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本委員은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議會 本會議에 市長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반드시 참석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本會議를 통해서 우리 市議會와 서울市民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일 서울市長이 本會議 市政質問 일정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리 議會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로부터 趙淳市長의 오만방자함을 질타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우리 委員님들이 전부 일괄해서 質問을 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 副市長께서 答辯하실 적에 나오셔서 하시고, 앉아서 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海瓚 副市長께서는 앉으시고, 答辯하실 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金鍾來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委員; 金鍾來 委員입니다.

副市長님의 答辯過程中서 오늘 오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문제로 오타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 政務副市長께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 行政이 그렇게 미약한가, 이런 감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오타라고 인정했을 때는 분명히 議會와 執行部인 市廳과의 문제가 政務副市長의 소관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이 行政1副市長으로 문서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行政1副市長께서 政務副市長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잘못 오타가 아닌가 하고 이 문제제기를 議會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행정이 전혀 없고, 또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습시다만, 이번 定期會 議事日程이 市 執行부와 협조체제에 의해서 날짜가 잡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특히 이 期間은 行政事務監査 기간입니다.

行政事務監査라는 것은 그 동안의 서울시 行政全般에 대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行政事務監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市長께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무슨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 하고 방문 목적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학의 초청강연이랄지, 우호증진이랄지 이런 목적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더욱 11월 30일은 이번 우리 定期會 첫 市政質問입니다.

이 市政質問은 우리 千百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 議員들이 서울시 行政 全般에 대해서, 특히 行政事務監査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市長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고 의지 있는 答辯을 해 주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1月 30日 불참한다는 것은 도저히 市民의 입장에서, 또 市議會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議會뿐만 아니라 서울 市民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行政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도저히 양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또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鄭鎭宇 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

○鄭鎭宇 委員; 鄭鎭宇 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同僚委員님들께서 대충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本委員이 첨언을 한다면 우리 同僚委員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趙淳 市長이 취임하고 처음 맞이하는 定期會고, 우리 4代 議會 開院되고 처음 定期會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市政質疑에 우리 市長이 불참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어떤 국제행사가 있을 경우에 일정대로 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執行部에서도 議會 창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企劃管理室長 같은 경우에 企劃管理室에서, 趙淳 市長의 방문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議會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지

금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運營委員會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趙淳 市長이 濠洲 訪問 때문에 市政質疑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토요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市議會 議員님들이 대단히 사실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常任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議員님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 委員님들이 해야 할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副市長의 答辯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음은 禹元植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禹元植 委員입니다.

앞에서 委員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趙淳 市長께서 就任하시면서 副市長 이하까지다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단하에 議長을 세워서 紹介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잘못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趙淳 市長님, 그리고 서울市 執行部가 議會를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연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市가 정말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執行부와, 특히 趙淳 市長님과 서울市 議員들이 정말 단합을 해서 견제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뚫어 나가야만 이 어렵고 복잡한 서울市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中央政府로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견제를 막아낼 수 있을텐데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 보면서 趙淳 市長, 그리고 執行部の 對議會觀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千百市民을 대표하는 147名 議員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趙淳 市長, 그리고 서울시 執行部の 對議會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洙福;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 안계시지요?

그러면 李海瓚 政務副市長께서는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李海瓚; 지금 宋仁回 委員님, 梁敬淑 委員님, 金鍾來 委員님, 鄭鎮宇 委員님, 禹元植 委員님, 여러 委員님의 말씀이 질문사항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時 오늘 會議에 副市長이 불참한 것은 저희한테 일단 공문이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저쪽 祝辭 일정이 잡혀 있고 1副市長은 또 소관업무가 아니고, 내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미 9時부터 집행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서 생긴 문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趙淳 市長님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의 첫 定期會 本會議기 때문에 당연히 市長님이 출석하셔서 市政質疑에 성실하게 答辯하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市長님이 濠洲에 가시게 된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濠洲로부터의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벌써 한참 됐습니다.

8月 9日 濠洲大使가 市長님을 예방을 해서 민선시대의 市長이고 하니까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특히 韓-濠洲間의 경제협력이라든가 환경교류관계 이런 것 때문에 濠洲를 꼭 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濠洲 시드니 대학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연설에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초청하는, 말하자면 濠洲 시드니대학으로서는 굉장한 예우를 높이는 그런 초청강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檢討를 하다가 지난 11月 9日, 그 동안에 일정이란가 의전이란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11月 9日 濠洲訪問計劃을 결정을 했습니다. 11月 9日 濠洲訪問計劃을 결정할 때까지는 市議會 議事日程이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11月 14日에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11月初부터 바로 富日程과 儀典에 관한 것을 濠洲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때까지 市議會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11月 9日에 일단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定期會議 집회 통보를 市議會가 저희한테 보낸 것이 11月 14日이고, 本會議를 11月 30日부터 열겠으니까 출석하라는 出席要求書가 접수된 것은 11月 23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市長님의 濠洲日程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서울 市議會의 本會議 日程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30日 하루는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濠洲하고 일정을 협의할 적에 30日 本會議에 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29日에 濠洲日程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전에 濠洲 下院議長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오찬은 濠洲 上院 野黨指導者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오후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首相을 예방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가지 일정이 하루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 일정을 전부 취소를 하고 29日에 귀국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고 상대방 外交 프로토콜상 대단히 缺禮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30日 前에는 귀국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日에 市長님이 本會議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市議會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는데 그 동안에 市議會와 저희 實務時間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서로 교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運營委員會가 열릴 때까지 사전에 이것에 대한 양해가 없었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市議會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이나 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儀典節次, 또 스케줄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고, 市長님의 儀典이 먼저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市長님의 해외출장이 잦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데 지난번 북경, 동경, 울란바토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市長님을 수행했습니다만 정말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 3個 國 베세토간의 市長을 대한 答訪, 그리고 몽고의 어려운 國家에 대한 우의 都市間의 外交를 넓히려고 하는 外交日程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都市間의 교류가 國家間의 교류에 못지 않게 매우 커지고 중요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정을 마치는 外交日程이었지 결코

흔히 市民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外遊 차원의 그런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濠洲訪問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資源과 經濟交流를 앞으로 많이 해야 할 國家가 바로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濠洲는 우리하교의 原資材라든가 이런 交流가 많고 특히 서울市에 濠洲가 거는 기대가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濠洲 首相이 오시고, 또 大使가 오셔서 환경에 관해서 서울과의 교류를 대폭 강화한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環境運動에 있어서 상당히 先進國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매우 많은 곳이고, 반면에 우리의 環境技術이 濠洲에 가서는 輸出할 부문도 많이 있는 그런 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濠洲에 가시는 것도 바로 環境關係 施設과 상호 環境交流 이런 부분에, 지난번 협정도 체결했습니다만 環境交流를 위한 그런 활동이 연설 못지 않게 중요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外遊가 결코 市民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鄭鎭宇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일정을 함에 있어서 議會事務處와 저희 市의 實務陣 사이에 議事日程을 잡을때, 혹은 市長님의 海外出張 日程을 잡을적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잡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國會에서도 臨時國會를 소집할 적에, 혹은 定期國會에 國務委員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事務處와 政府總務處間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잡는 것이 관행인데, 지금 市議會事務處와 우리 實務陣사이에서 그런 절차상의 조율이 부족했던 점을 市長님을 대신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市議會에 대한 관점을 물으셨는데, 아마 市長님 자신이 民選時代의 첫 市長이시기 때문에 어느 歷代 市長보다도 市議會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가장 각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모시고 지금 5個月, 또 選舉前에도 3個月, 約 8個月 가까이 모시고 일을 해 봤습니다만 그 때마다 언제나 市議會가 열리고 常任委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本會議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 경청을 하시고 그 문제를 市幹部會議나 또 部署에 따라서 늘 지시를 하고, 市議員님 말씀 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늘 지시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市議會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市職員들에게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議會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오해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견해가 있으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29일까지 중요한 公式日程이 끝나고 30일에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濠洲 비행기편이 자주 있지 않아서 오후에 도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도착하시면 韓國時間으로 6時 55分 도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예정대로 도착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0일은 부득이 市長님을 대신해서 저희 副市長이 市長님을 대신하는 답변을 議會에 드리도록 議會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洙福; 더 이상 질문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金聖浩 委員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聖浩 委員; 金聖浩 委員입니다.

방금 政務副市長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어 가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첫번째, 토요일 市長의 濠洲外遊로 인해서, 市議會 定期會 市政質疑가 아마 과행적 운영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에서 執行部側에 우리 나름대로 政務副市長, 內務局長, 企劃管理室長을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政務副市長께서 답변 도중에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의 미비로 인해서 나름대로 조율이 덜 돼서 行政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오늘까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市廳內部的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執行部側과 우리 議會事務處間의 커뮤니케이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議會文件이 14일에 市廳側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議會執行部の 주요 핵심간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運營委員會 幹事로서 우리가 30일부터 3日間 市政質疑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議會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이 11月初에 議會 運營委 委員長님이나 議會 指導部에서 議長 이하 여러 사람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밑에 議會協力係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정보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동되는 것으로 하는데 市廳 執行部측에서는 그만큼 우리 議會를 보는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서 趙淳 市長님은 우리 議會를 보는 관점은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副市長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議會의 여러 협조사항이

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데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副市長께서는 30日 市政質疑답변까지도 우리 議會 차원에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마무리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양해를 해서 될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음은 洪淳喆 委員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洪淳喆 委員; 洪淳喆 委員입니다.

부연해서 副市長께서는 11月 9日에 濠洲訪問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5日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議會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月 9日부터 여태까지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事務分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事務分掌에는 분명히 行政第1副市長의 事務分掌이 따로 있고, 第2副市長, 그리고 政務副市長의 事務分掌規程을 확실히 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市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음은 梁敬淑 委員 질문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11月 9日에 市長의 시드니 방문일정이 결정되었고, 11月 14日에 定期會議일정을 통보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11月 14日에 즉시 議會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를 14日에 받았고 5日 後에 일정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議會와 의논을 안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副市長께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해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태가 實務陣들의 착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 분명한 責任回避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11時 議會의 出席要求에 대해서도 行政副市長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政務副市長이 직접 運營委에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해 한 마디 없이 세미나를 핑계로 會議場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市長이 議會를 무시하니까 副市長까지 議會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李海瓚; 지금 11月 14日 저희가 市議會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공식일정을 최종 결정한 것은 11月 9日입니다.

공식일정을 최종 11月 9日 결정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사전에 濠洲의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10月末부터 일정조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市議會에서 일정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서 조정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月 14日 결정할 때 運營委員會에서 議事日程을 저희한테 통보해 올 적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충돌, 중복 되리라고는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市가 行政1副市長, 2副市長, 그 다음에 政務副市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副市長은 行政分野에 관한 것을 總括하고 계시고, 2副市長은 技術分野에 관해서 總括하고 있고, 政務副市長은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政策과 企劃에 市長을 補佐하고, 그 다음에 公報, 言論, 그 다음에 市議會, 國會, 政黨, 社會團體 이 쪽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세 副市長이 市長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月 14日 왜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1月 9日 결정이 됐고, 定期會 통보를 14日에 받았는데 저희 공식적으로는 議會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 언제나 출석하는 것이 條例上, 規則上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市議會가 日程을 잡을 때 市議會事務處와 저희 企劃管理室 사이에 서로 양쪽에 불가피한 일정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상호 조정과정을 거쳐서 날짜를 잡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30日 일정을 잡는 줄 알았으면, 가령 하루 늦춰서 1日부터 잡았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本會議 날짜를? 서로 이해가 됐으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實務陣 사이에서 상호조율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문제인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責任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事案의 경위 과정을 저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서로간에 충분히 대화 안 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法律的으로 본다면 저희는 公文書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정이 아침9時부터 매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가 오늘 運營委員會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전 일정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出席을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出席을 안했다면 오후에는 왜 출석을 하겠습니까? 午前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제상식으로 보통 소관 局의 局長들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市議會 條例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자 그래서 오늘에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市議會에 반드시 출석요구 하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가 두말 않고 그러면 참석해서 答辯을 해야지, 그러고서 제가 職員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가 市議會에 대해서 무슨 다른 감정을 가지거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 민선시대에 市議會와 市長님이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임을 띤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洙福; 金洪奎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시다만, 그 안에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많은 質問을 하셨으리라 믿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4代 開院 後에 지금까지 市政質疑를 하면서 보면, 거의 市長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副市長이고 나와서 答辯해 준 사람 없고, 質問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臨時會때 李海瓚 副市長은 한번 나와서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마을旗 문제 가지고 한 번 나와서 答辯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市政質疑를 市長도 안 계시고 副市長이 答辯하겠다고 했는데 市長한테 묻는 얘기를 副市長이 과



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答辯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수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委員들께서 市政質疑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市長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市長에게 答辯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市長도 안 계신 데서 과연 市長에게 묻는 얘기를 副市長이 答辯하겠다고 해서 質問하신 분들이, 또 전체 듣는 議員들께서도 과연 그 答辯이 충분하겠다고 들어줄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議事日程을 잡았을 때도 서로 執行部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조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 副市長님들이 答辯을 위해서 나오겠다면 副市長 나오지 말라, 市長 答辯해 주시오, 市長 오라고 하시오 했을 때 그때 副市長님들이 끝까지 答辯하시겠습니까? 質問을 하는 것은 市長한테 했는데 아주 運營委員會에서도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이것저것 전부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날 質問하실 분들은 상당히 지금 執行部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執行部の 성토장이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市長님이 그 안에 참석을 해서 市政質問하는데 잠깐 자리 비웠을 때도 그것도 비워서 안 된다 해서 상당히 議員들이 말이 많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政質問 날짜를 잡아놓고 市長에게 직접 묻고 싶은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副市長께서 答辯하실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金聖浩 委員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委員; 지금 계속 우리 運營委員會 委員님들이 常任委員會도 바쁘고 그런데 會議는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우리 政務副市長님의 答辯을 요구합니다. 지금 副市長이 아마 國會議員職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國會에서 가령 政府 部處나 總理가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을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은 몰라도 언론보도나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李海瓚 副市長은 썰썰 뒤흔을 것입니다. 고함 고래고래 지르고 하셨을텐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不在로 인해서거나 또는 實務者들의 行政錯誤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든 나름대로 執行部側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태까지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副市長님은 깨끗하게 내 밑의 부하들이 잘못했다든지, 깨끗한 사과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사태를 종결짓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本委員의 發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그러면 李海瓚 副市長께서는 우리 同僚委員들의 질문과 아울러서 이번 趙淳 市長의 修理訪問 時의 所要豫算이 얼마인지, 항공료, 체재비, 만찬, 선물비 등 항목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本 委員長이 알기로는 수행기자 2名을 포함한 항공료, 체재비가 460萬원이고, 만찬 등 선물비가 무려 1,800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찬과 선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主要日程을 보면 約 5회에 걸쳐서 機關을 禮訪한다고 그렸는데 그러면 한 군데 예방할 적에 무려 約 360萬원꼴로 豫算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물 가지고 다니면서 市長이 오히려 구  
결하러 다니는 꼴이 되어버린 것으로 本 委員長은 알고 있는  
데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연속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  
는지 그 點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李海瓚; 30日 市政質疑에 관련된 金洪奎 委員  
말씀은 市議會에서 양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양해가 없  
으면 副市長들이 임의로 答辯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議員  
님들이 市長님의 정책적인 決斷을 요구하는 質問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市議會에서 판단하셔서 副市長의 答辯으로 같  
음이 된다면 양해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 市議會的 양해 없이 임의로 副市長이 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聖浩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事案의 잘못  
된 정도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말하자면 지적은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의  
도적인 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상호간에 의사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職員들이 잘못했  
건 市議會事務處 職員들이 잘못했건 그 분들에 대해서 결국  
은 執行部の 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  
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제가 촉  
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市議會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  
린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과 안 하고 할 정도로 제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일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위

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市長님의 濠洲 초청에 의해서 市長님과 그 수행하는 政策企劃官, 下水道課長, 公式的인 일정에 필요한 關係公務員들은 그 쪽에서 全額 經費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를 다 부담해서 가시는 것이고, 다만, 거기 가서 저희가 답례로 만찬을 한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韓人會에 대해서 간 김에 격려 만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비용과 그에 소요되는 선물, 그것만 市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費用을 많이 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쪽의 아주 간절한 초청이 있어서 經費까지도 그 쪽이 다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다만 市長님이 가실 적에 저 쪽에서 요구하는 政策企劃室이라든가 下水道課長이라든가 공식적인 業務와 관련되지 않는 市長님 隨行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市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洙福;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大韓民國 首都 서울의 發展相 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議員들이 열악한 自治環境 속에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市政의 監視監督者로서의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비록 사전에 濠洲와 협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議會의 議事日程을 무시하고 해외출장을 한 것은 결코 잘못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러한 事例가 再發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李海瓚 政務副市長 이하 執行部 幹部 들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會議에 참석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李海瓚 政務副市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金洙福 金洪奎 金聖浩 金鍾來

梁敬淑 吳光烈 禹元植 鄭鎮宇

鄭泰宗 宋仁回 洪樂元 洪淳喆

○專門委員

梁在大

○出席公務員

政務副市長 李海瓚

企劃管理室長 都明正